

행정사무감사 실시·내년 예산안 처리

남구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열고 2013년 의정 마무리

남구의회(의장 박영근)는 2013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20일부터 열고 있다.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내달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남구청장의 구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4년도 예산안 확정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구정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2013년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 기초지방의회는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의 제·개정과 구정 및 의정에 관련되는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문화, 교통, 토목, 건축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이 필요한 실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갖춘 대학교수, 문화예술가,



2013년 한해 의정을 마무리하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가 내달 18일까지 열린다.

기타 전문가 등으로 기초의회에서는 드물게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 12.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자치구(군)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수 요건 미충족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감사청구인수 하향조정을 통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의 2012. 8. 22일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피해를 예방·복구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전북 남원시 의원 남구의회 방문

오륙도 스카이워크·홍보관·해파랑길 체험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남구의회를 방문, 두 도시 간의 상호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성범)는 지난 4일 남구의회를 방문했다.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방문단은 오륙도 선착장을 찾아 동·남해의 경계를 표시한 표지석과 최근 준공된 오륙도 스카이워크, 오륙도 홍보관을 둘러보고 해파랑길을 걸었다.

박영근 의장은 “부산의 명물들 자리매김할 스카이워크와 해파랑길의 시작점인 오륙도로부터 출발하는 해

파랑길의 탐방으로 남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두 도시간의 깊은 교류를 통해 더 나은 지역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회는 지난 2011년 1월 남구의회를 방문, 자매결연을 맺고 이듬해부터 두 도시를 오가며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정능력 높여 지역발전 꾀하다

강원·충청 일원서 의원 국내연수 실시



강원도 정선 아리힐스 스카이워크를 찾은 의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한자리에 모였다.

남구의회는 의정능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연수를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다녀왔다.

강원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정선 아리힐스 스카이워크, 선암마을 등 자연을 관광자원화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명소를 찾았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견학결과 사례발표와 간담회를 열어 남구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시 벤치마킹 도입 등을 토의했다. 특히 연수 중 의원들은 정선읍 복식리에 소재한 ‘아

리힐스 스카이워크’와 지난 18일 준공식을 가진 ‘오륙도 스카이워크’와의 비교를 통해 양 시설의 재원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 등을 벤치마킹했다.

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5일에는 의정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숙원사업대상지 의원합동 현장순방 실시와 관련한 세부실시계획과 주요대상사업, 2013.행정사무감사 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 여러 가지 당면 사항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을 나눴다.



운영위원회 인간심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명)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한해 의정을 마무리 하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 방청시기: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본회의장 •방청대상: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방청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 문의: 남구의회 사무국 ☎607-6521 ~ 6

■ 의원인턴십 - 김 병 태 의원

24시간이 모자란 남구의 복지지킴이

경제학 박사 출신, 지역민원해결에 앞장서는 실천가

대연1동 새동사 건립위해 동분서주, 주민 삶 향상이 목표

김병태 의원은 교육전문가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지역 일꾼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부산시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유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책임의 운동 “BBS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펼쳐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그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 삶의 질과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병태 의원은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3%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해 203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 2040년에는 3명 중 1명으로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라며 “남구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태 의원은 또 “노령의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

의 근대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분들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따뜻하게 모셔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래서인지 김병태 의원은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오래 전부터 경로잔치를 열고 경로당을 오가며 노인세대와 소통해 왔다. 이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홀대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병태 의원은 고령화시대 노인문제 해결에 힘쓰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그 방편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창하고 있다.

김병태 의원은 대연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새동사 건립을 위해 재원확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원해결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는 신념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서러면 밤낮없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행동가이자 실천가이다. 민원 상담소를 설립해 늦은 밤에도 민원인을 기꺼이 찾아가는 행보로 주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김병태 의원은 구정과 의정을 잇는 가고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남구의회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주민 평가를 듣고 있다.

이와 함께 구의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다. 먼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태 의원은 남구의회 총무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부산시 민방위 감사, 동명대 감사, 오륙도문화포럼 상임대표, 남구청년연합회 고문, 우동장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경제학 박사로 신라대 겸임교수를 누비며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쏟고 있다.

■ 의원칼럼 - 여 승 철 의원

우보천리(牛步千里)로 감만동을 바꾼다



이 다 되어간다.

그 2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한때 감만동을 대표하던 여러 주민대표들은 단연컨대 지역 주민에게 한가지 혹은 그이상의 것이 마음 한구석에 부채와 책임감으로 남아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무서운 속도와 경치를 앞세우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군림하듯 마을을 질주하는 대형 차량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국가경제의 기본인 물류를 위한 희생하고 인내하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대형차량에 자식, 혹은 부모 형제를 잃고 원망하며 자신의 동네를 떠나버린 주민들의 혼들리는 뒷모습도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을 것이며 남아 있는 주민들의 온갖 비난과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들었으리라 여겨진다. 한적하고 사람 좋은 마을을 대형 차량이 이등분하며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그렇다 감만동과 대형차량은 그렇게 수 십 년을 불편한 동거를 해오며 때론 정지인들의 입바른 유혹이 되어 표를 구걸하거나 혹은 누가 누가 이 길을 팔아 돈을 쟁겼네 어쩌네 하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마치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며 불신을 조장하던 지난 수 십 년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 본질 이였던 대형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 된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시청과 경찰청, 향민청을 돌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안다닌 곳이 없고 이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농성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고 싸워왔던 결과 일 것이다.

이렇듯 긴 시간과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여야 이 불편한 동거를 끝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더딘 걸음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보천리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 기쁘기 한량이 없다.

다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려천 주민들의 힘과 주민 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과 시의원, 구의원등 여러 분야의 활동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것이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 국민들이 스스로가 엄청난 선거비용을 들여 자신들의 대표를 뽑았으면서도 정작 주민들은 그들의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를 본적이 있다.

신뢰는 실천에서 오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자 들일 것이다.

우보천리를 실천하는 주민과 주민대표들이 있는 한 최소한 남구에서는 신뢰받지 않는 자가 선택되는 일 또한 없으리라 생각하면 괜히 뒷머리가 먹먹해지는 것은 나의 자각지심일까?

■ 5분 자유발언

스카이워크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김광명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카이워크 개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 워크가 개장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신문 등을 통해 유리바다 균열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며 “물론 전문가들이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균열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공사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가로 손잡이 스테인레스봉의 볼트 풀림과 유격에 따른 상하 흔들림 발생으로 시설물 사용에 불편이 대두되고 있으며 광장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배치돼 있는 인력들의 책임감 등이 낮아 시설물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김광명 의원

당초 계획을 했던 유리 출입문이 전동 자바라 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풍시 아간 출입 통제가 어려워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무기 계약식 등 상근 인력을 채용하고 동편 주차장 등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요원들이 근무할 부스 설치도 검토하고 균열이 발생한 유리는 조속히 교체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단되고 화장실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 에 도 당초 계획했던 유리 출입문이 전동 자바라 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풍시 아간 출입 통제가 어려워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무기 계약식 등 상근 인력을 채용하고 동편 주차장 등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요원들이 근무할 부스 설치도 검토하고 균열이 발생한 유리는 조속히 교체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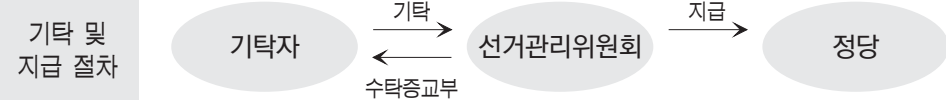
소액정치후원금 기탁제도 안내

■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란

-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 정치자금의 기탁자와 기탁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 정치후원금 기탁금의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후원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당시의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함



■ 정치후원금 기탁시 세제혜택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의 세액을 공제하고(그 기탁금액의 100/11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탁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정치후원금 기탁방법

- 남구선거위가 개설한 기탁금계좌(신한은행 100-025-811108, 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기탁금을 이체하고 기탁서를 팩스전송해 주시면 됩니다(Fax : 0505-058-2223)
- 정치후원금 기부센터(http : //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서양식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1-633-7656)

- 문의: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633-7656, fax : 0505-058-2223